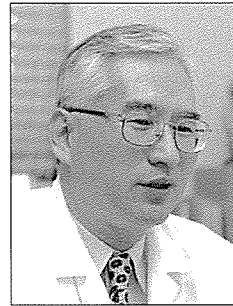


획기적 유방암 조기진단시약 개발 성공

- 브레첵, 조기진단을 83.3%로 탁월한 효과 보여
- 기존 검사에 비해 4배 이상 높아
- 유방암 조기발견의 새 지평 열어



정 상 설 교수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유방센터



김 진 우 교수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산부인과

우리 나라 여성이 가장 많이 걸리는 유방암을 간단한 혈액검사로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획기적인 진단제가 국내 대학병원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유방센터 정상설(鄭相設, 56세) 교수와 산부인과 김진우(金振宇, 53세) 교수 연구팀은 기존 유방암 검사에 비해 진단효율이 4배 이상 높은 브레첵(BreaCheck)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이번 연구 성과는 미국에서 발간되는 유명 학술지인 '임상 암 학회지(Clinical Cancer Research)' 11월 17일자 인터넷 판에 발표되었다.

현재 유방암에 대한 혈액검사는 혈액 속에 종양표지자인 CA15-3를 측정하는 방법이 주로 이용되고 있으나, 이 검사법은 진단율이 20% 정도에 불과해 확실한 진단 방법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연구팀이 개발한 유방암 진단시약인 브레첵은 지난 1999년 본 연구진이 발견한 새로운 암유전자인 HCCR이 발현시키는 단백질 항원을 이용하여 제조한 단클론항체이다.

유방암 진단 방법은 환자에서 극소량의 혈액을 채취한 후 체외에서 효소 면역 측정법(ELISA)을 이용하여 유방암 유발 단백질인 HCCR 수치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 방법으로 연구팀은 129명의 유방암 환자와 24명의 양성 유방 종양환자, 158명의 정상인에서 유방암 유발단백질 HCCR과 기존의 종양마커인 CA 15-3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유방암 환자에서 HCCR은 87%의 민감도를 보여, 21%를 보인 CA 15-3 보다 약 4배 이상 높게 나온 것을 확인

하였다. 더욱이, CA 15-3에 음성을 보인 유방암 환자들의 88%에서도 HCCR 검사법은 양성으로 나타나 이 단백질이 CA 15-3보다 유방암을 진단하는데 매우 효율적인 검사임이 증명되었다. 특히, 브레첵은 조기 유방암에서 83.3%의 양성 반응률을 보여 유방암 조기 발견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설 교수는 '유방암은 초기에 발견만 하면 완치율이 거의 100%에 가까운데, 환자의 절반 이상이 3기 이상의 말기에 발견된다며, 브레첵을 통해 유방암 조기발견이 가능해져 유방암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진우 교수는 특히 '기존의 혈액검사보다 월등한 효과를 보인 새로운 신약이 개발됨에 따라 유방암 조기 진단 및 발견에 새로운 길을 열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한편, 신규 유방암 진단시약 브레첵은 올해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보건신기술로 인정 받았으며, 국내는 물론 미국, 일본, 중국과 유럽 10개국에 특허 등록을 완료하였을 뿐 아니라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추진하고 있다. 